

늦가을 추위 녹인 ADT캡스의 나눔 활동

갤러리 씬터·푸드트럭 등 이벤트
1인 자취생에게 캡스홈 무상지원
지체장애인의 날 기부금 전달도

올해 16회째를 맞이한 'ADT캡스 챔피언십 2019'가 10일 안송이의 데뷔 10년만의 생애 첫 우승 감동 스토리와 함께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상금왕, 세이프티챌린지를 포함한 모든 타이틀의 주인공이 확정되었으며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2019 KLPGA도 종료됐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갤러리 참가 대회장을 찾아 시즌 마지막을 빛냈다. ADT캡스는 이에 보답하듯 갤러리 플라자 내에 씬터와 푸드트럭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여 갤러리들을 즐겁게 했다. ADT캡스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ADT캡스 챔피언십 2019' 골프대회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 활동을 펼치며 스포츠 이상의 가치를 실현해 주는 겨울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대학교 1인 가구에 캡스홈 무상 제공

ADT캡스는 대회가 열린 천안시 소재 단국대학교, 남서울대학교와 손잡고 해당 대학 1인 가구에 홍보안 서비스인 '캡스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선수들이 18번 '캡스홈' 시그니처 홀에서 버디 1개를 기록할 때마다 자취하는 대학생 1인에게 1년간 '캡스홈'을 무상 지원하



공식포토콜에서 ADT캡스 사회적 가치 활동 피켓을 들고 포즈를 취한 임희정, 박민지, 조아연(왼쪽 두 번째부터).

사진제공 | ADT캡스

는 프로그램으로 1라운드 16개, 2라운드 15개, 그리고 파이널라운드 16개가 발생하여 총 47명의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파란 팔각형이 많아질수록 대한민국은 더 안전해집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ADT캡스는 이번 대회를 통해 더욱 안전한 천안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했다.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부금 전달

11월 11일은 과자이름을 붙인 기념일로 유명하지만 지체장애인의 날이기도 하다. 지체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사회적 가치 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ADT캡스

는 2016년부터 매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후원금은 ADT캡스와 프로암 참가자들의 기부금으로 모금되었으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을 대회장으로 초청해 직접 전달식을 진행했다.

●골프팬과 갤러리의 안전에 앞장

골프는 타 스포츠에 비해 부상 확률이 적지만 대회장이 넓고 많은 선수들과 갤러리들이 참여하는 만큼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ADT캡스는 더욱 안전한 대회를 만들기 위해 매년 심폐소생술 및 호신술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역시 대회기간 동안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진행요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강의를, 선수들을 대상으로 호신술 강의를 진행해 'ADT캡스 챔피언십'만의 색깔로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갤러리 안전을 위해 2017년부터 시작한 'Put Safety First' 프로그램이 올해는 카트 안전수칙을 주제로 열렸다.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카트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캡들이 직접 나서 재미있게 표현했다.

허보람 객원기자 hughandong@naver.com

'유튜브 도전' 임용수 캐스터 "뻘하지 않은 편한 삶 살래요"



임용수

"간다~ 간다~ 넘어 가느냐~ 호음런~! O 런~! OOO!"

지난 6일, 수원 광고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데뷔 23년차 임용수 캐스터를 만났다.

경기 중계를 하면 연장전이 잦아 '임연장'이라는 별명을 얻은 임용수다. 그는 이 별명에 대해 "그런 것들은 제가 준비를 착실히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요즘은 연장 승부 끝에 무승부가 존재하지만,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무승부를 보려고 야구장에 찾아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2화-무승부-끝. 이런 결말은 선수들과 팬들 모두 참 찜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라며 연장 무승부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1997년 한국스포츠TV 공채 2기 아나운서로 데뷔해 지금까지 스포츠 캐스터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는 최근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10월 15일 '임용수의 토크백'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의 삶에 도전장을 던졌다.

유튜브 채널을 연 이유를 묻자 그는 "사람은 어느 때나 한 조직에 머물러 있으면 실무보다는 관리자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관리보다는 실무에 계속 뛰어들고 싶습니다. 현장 안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제 인생의 모토가 '뻘하지 않은 편(편)한 삶'을 살자입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제가 성악을 전공한 만큼, 후일 야구팬들과 함께 오케스트라를 해보는 것도 저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라며 밝게 웃었다.

이진혁 명예기자(수원대 체육학 전공) jenddl0051@naver.com

'모굴스키 1세대' 서명준 "은퇴 시원섭섭...새로운 도약 꿈꿔"

스포츠아카데미 설립 후 제2의 삶

지난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대한민국 모굴스키의 '개척자' 서명준을 만났다. 척박한 모굴스키를 개척해나간 그는 다시 스키장 위에서 새로운 땅을 일구며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네 살 때부터 스키를 타기 시작했다는 서명준은 선수시절 줄곧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국내외 대회에서 높은 순위에서 오르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2012년부터 약 2년 동안 겪은 부상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서명준

"부상을 당하면서 여러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니까 스키 선수라는 생활에 회의감이 들었어요. 소치 동계올림픽을 못 나가게 되면서 그만뒀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스키를 타야하는 동기를 찾지 못했죠."

하지만 기나긴 방황의 터널에도 끝은 있었다. 2016년 세계랭킹 20위권 선수들만이 출전할 수 있는 '2016 스키 파이널월드컵 대회'에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진출하는 쾌

를 이뤘다. 그는 "마지막을 결심하고 '재밌게 타야지', '내 나름의 스키를 타야지'라고 했던 생각들이 오히려 좋은 성적으로까지 이어진 거 같아요"라며 웃었다.

그는 성적에 집중했을 때가 아닌 본인 스스로에게 집중했을 때의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있었다. "처음 스키를 시작했던 이 유두 스키장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컸기 때문이에요. 성적 때문이 아니었죠. 제가 스키를 타면서 가장 만족감을 느꼈을 때도 성적이 아닌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나왔을 때였어요. 선수들이 운동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최근 그는 평소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를 담은 'Movelpment'라는 스포츠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그는 "스포츠가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와 역할을 알리고, 기존의 승리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가치 중심의 스포츠 문화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은퇴하고 나니 시원섭섭했는데, 이제 다시 신인의 자세로 돌아가야 할 거 같아요(웃음). 저만의 새로운 꿈을 다시 또 펼쳐야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그의 눈은 신인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인서 명예기자 (서울대 체육교육 전공) woorilis@naver.com

올 겨울 강추위~ 이 세트 구성이면 걱정 끝!

상상초월 대박찬스를 잡아라! 5종세트 69,800원

패딩자켓, 갈감 최고급 실크+일본 100%

동계용 기모 티셔츠

동계용 기모 안감 바지

기능성·스타일·활용성 모두 겸비한 베스트셀러 아이템으로 구성!

모델명 가형

5종세트 69,800원

자켓 네이비/내의 블랙 바지 네이비/셔츠 네이비

남자는 오직 네이비!

모델명 나형

5종세트 69,800원

자켓 블랙/내의 블랙 바지 블랙/셔츠 와인

블랙은 언제나 블랙!

모델명 다형

5종세트 69,800원

자켓 와인/내의 블랙 바지 그레이/셔츠 블랙

와인 & 블랙 환상의 조화!

패딩자켓 사이즈 95, 100, 105, 110 / 바지 사이즈 30, 32, 34, 36, 38, 40
티셔츠 사이즈 95, 100, 105, 110 / 내의 상하 사이즈 L-95/100, XL-105/110

www.style49.com

입금계좌 : 농협 302-1316-9132-11 예금주 : 이선희센스스포츠 전국주문전화 : 1588-4930
(택배비 3,000원 구매자 부담) 각종 카드결제 가능 / 기업·단체복 문의 환영